삼성전기, 벚가리마을에 태양광설비 기증

삼성전기는 8월19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충남 태안군 이원면 벚가리마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기증하고 봉사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마을회관에 설치된 발전 설비는 3kW 규모로 태양광 발전에 따른 에너지 절감비용은 마을 복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삼성전기는 벚가리마을 외에 강원도 화천군 토고미마을, 경남 남해 다랭이마을 등 전국 7개 농어촌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1/08/19>